

[종합·해설]

3金 이어 이회창 전 총재도 '꿈틀'

원로 정객들 정계복귀 수순 밟나

정계개편·대선 앞두고 강연 등 활동 활발

정대철·최병렬 등 옛 중진들도 물밑 움직임

정계개편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DJ),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물론,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의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3김' 외에 이회창 전 총재의 정계복귀설은 단연 정치권의 화제다.

이 전 총재는 오는 20일, 30일 그리고 내달 5일 시민단체와 대학, 한나라당이 각각 주최하는 행사에서 잇따라 특강을 하는 등 왕성한 대외활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계복귀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 전 총재와 동향인 홍문표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전 총재가 국민과 당을 위해 일을 할 때가 됐다"며 이 전 총재의 정계복귀를 위한 땅고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지난 15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이 전 총재 측근들이 최근 이 전 총재의 차기 대선 출마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이 전 총재는 일단 당의 원로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한편, 기회가 되면 대선 주자로 나서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등 한나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일부가 치명적인 약점 등으로 인해 후보군에서 탈락할 경우 직접 대선 주자로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일각에서 이 전 총재의 복귀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정치권의 핫 이슈로 등장했다. 각종 강연과 인터뷰에서 햇볕 정책의 수호를 주장했던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까지 갖는 등 민주세

력 대통합 등을 둘러싼 여론 발전 계개편의 핵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북한 핵 실험 이후 이뤄진 전직 대통령 청와대 회동에서 DJ와 햇볕정책에 독설을 퍼부었다. 김종필 전 총리도 충청권 민심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

3김과 이회창 전 총재의 행보와 맞물려 여야 옛 중진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정대철 고문, 이부영 전 의장의 물밑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최병렬 사청원 전 대표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사덕 전 의원의 지난달 31일 국민대 특강을 시작으로 강연정지에 시동을 걸었다.

입법총조사 tuim@kwangju.co.kr

노대통령 "퇴임후에도 정치·언론운동 계속" 발언

노사모 대표가 몰래 녹취... 논란 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들과 가진 행사에서 비공개로 행한 발언을 일부 회원이 녹취, CD형태로 유포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톱니'라는 아이디의 노사모 회원은 17일 노사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8월27일 노사모 회원일부를 초청해 가진 비공개 회담에서 '입기 후에도 정치, 언론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김병천 현 노사모 대표에 의해 녹취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류방송을 일으킨 '겨울연가'의 촬영감각으로, 최근 노사모의 대표일꾼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톱니' 회원은 녹취록이 다른 노사모 회원에 의해 CD로 구어체 유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CD가 흘러들어가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됐으며, 관련자를 색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의 허락도 득하지 않

고 몰래 녹취를 한다는 것은 불법도 청에 해당된다"며 "그 일로 인해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 모임을 주선한 관계자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노사모에 강력하했다"며 김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심우재 노사모 전 대표의 관련 의혹을 시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노사모는 김 대표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를

옹호하는 일부 회원들은 노사모 외에 또 다른 친노조직인 '국민참여 1219'(국참)가 노사모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일부러 김 대표의 녹취 사실을 게시판에 공개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권 한나라당은 노사모의 대통령 발인 녹취에 대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사모가 노 대통령의 발언록을 유출, 공개한 것은 이십전심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한다"면서 "노 대통령 입장에서 '불감참고소원'(不敬謝函所願: 감히 청하지 못하나 본래는 원함)이고 노사모는 그 의중을 정확하게 읽었다"고 주장했다.

연희뉴스

法-檢 '영장갈등' 금주 초 최대 고비

18일 '론스타 비밀회동' 갈등 더 심화
대검 오늘 간부회의서 대책 마련



18일 춘천지검 등 강원도 내 검찰직원들과 함께 평창군 오대산 비로봉에 오른 정성명 검찰총장이 사자암 인근 숲을 거닐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할값매각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갈등이 이번 주 초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유 대표의 영장이 이달 초부터 잇따라 기각되자 "영장담당 판사가 독립적 입장에서 재심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성토했으며 준항고를 청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차 회동 '잘못된 만남' =영장 기각 사태를 둘러싸고 법원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이상훈 형사수석 부장과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 검찰측에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회동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법원-검찰의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회동을 제외한 이상훈 수석부장은 휴일인 18일 모임을 성격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민 불안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사적인 회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중수부장도 언론 보도는 왜곡됐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준항고 기각 땀 대법원에 재항고=검찰은 20일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주례 간부회의를 갖고 영장 기각이나 4차 비밀회동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 회회에서 유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를 한다는 방침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영장 기각에 대한 항고나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검찰의 준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연희뉴스

헌법학회 '대통령 중임·부통령제' 제안

대선 결선투표 도입도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회장 김영성 상근관대 교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헌법학회는 19일 공개한 헌법개정안 보고서에서 "5년 단임제 대

통령은 집권 초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 4년 중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학회는 "안정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개헌보다는 헌법 대통령제를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

의를 하는 게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회는 또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으로 권력분립, 법치국가 원칙의 근간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학회는 특별사면을 구체적 사례로 제한해 개인에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헌법내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희뉴스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 이제 전문 법무사와 상담 하십시오! 법무사 광고문의 (062)227-9600

<p>개인회생·파산전문 김성근 법무사 부채증명 발급 대행 각종등기, 경매 상담 금호지구 헤터마트 옆 T.(062)681-2345</p>	<p>개인회생·파산전문 주기성 법무사 연중무휴 24시간 출장 상담 개인회생·파산·면책 부채증명대행 비용분담 위치: 법원 앞 상담원 016-225-3512 T.(062)222-5122~3</p>	<p>개인회생·파산전문 박중옥 법무사 개인 회생·파산 면책 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파산 회생은 골이 아닌 새대로 시작합니다. 언론사 여러번 보도 있습니다. · 카드 대금 보충금·대출금 개인 사채 및 모든 채무 · 사인자, 불가 부채, 회사채, 공판금 등 · 신용회복 반대청구 과다한 돈, 실패사례 · 채무분담 무리가 있는 분 · 부채 증명 발급 대행 T.(062)385-2070~2080</p>	<p>부동산·법인·상업등기 전문 송중원 법무사 친·절·상·담 · 부동산 이전, 설정 모든 관련 · 회사설립·증자·감자·합병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변경 관련 위치: 금남로2가 무등빌딩 5층 T.(062)234-4200</p>	<p>개인회생·파산전문 윤재효 법무사 빛·탕·감!!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남 지역의 파산/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 부채증명서 무료 발급 수입료 분담 가능 24시간 무료 출장상담 및 방문상담 T.(062)384-9768~9</p>	<p>개인회생·파산전문 희망법무사 사무소 이상준·남종우 법무사 채무/압류/집행 동산경매/신용회복 해방!! 빛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파산면책/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전남 최대의 희망법무사 사무소에서 채무를 탕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상담회 안내 : 매주 월요일 15:00부터 ■ 채무 금액요일 15:00부터 T.(062)228-4455, 011-625-6097</p>
---	---	---	---	--	---

9급 공무원 국가직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채용시험대비**

행정직 국가·지방직, 국가·이회창 영예·경중호 행정직·영우원 행정직·이명호	교정직 공채: 450명 대비반 특채: 1,000명 특별반	농업직 전국 대표적 농업직 강좌 출제위원 이상우 교수팀	소방직 소방분야, 운전분야 소방직 책임합격	경찰직 일반경찰 101단 차주운 합격팀 강의
---	--	---	--------------------------------------	---------------------------------------

개강 12월 1일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KPA 회원 2006년 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예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 2개월 졸업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동영상(화원제)
 - 정독서식, 고시원 합인 혜택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매일 실전문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영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www.police3112.net

공무원 쉬운것!

- 교정공무원
- 사회복지직
- 소방공무원
- 보훈관직
- 세무공무원

개강 12월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건축사공 토목사공 **기이** **채비** **소강의!!**

개강 11월 25일(토)6시

드디어 본원에서 김우식 원장님을 초빙하였습니다. 배년 2월에 합격 하시는 기회를 잡으세요!!

- 김우식 원장 강의내용
- 특강 및 모의고사반

4,085명 합격시킴!
2006년 8월 20일(80회)시험에 건축·토목사공기공사 284명 합격시킴!
"기술사 신화창조"

062)512-5400 www.21kj.co.kr

국비지원 과정 개설
· 재직자과정(형사합금)
· 근로자과정(개인합금)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학·치의학 전문 대학원 대비 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 일반, 학사, 사대면접
- 편입대 영어 기초반
- 약대, 안의대면접
-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개강 11월 1일 227-8088